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건강한 노년 성경: 신명기 34장 7-12절

Tag:노년,건강,가정,노인,백세시대,구약성경,신명기,모세

7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 일을 애곡하니라

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10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34:7-12)

모세는 노인의 모범이 되었다.

모세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모세는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십계로 유명해졌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로부터 나일강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는 왕자로서 40년간을 살았지만,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동족의 아픔을 위해 헌신하려다가 실패하여 광야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그는 다시금 애굽으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다.

출애굽 이후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는다.

이후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다가 느보산을 거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다음 죽음을 맞이한다. (광야생활만 80년 인생의 2/3를 광야에서 보냄.)

모세는 120세까지 살면서도 눈이 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남. 건강하게 자라남.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식구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모세를 살려낸다. (정의롭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삶의 방식 앞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낸 가정)

-모세는 나중에 커서 자기의 민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의분을 느끼며 자신의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한다.

-모세는 의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다.

-주먹이 컷는지, 한번 때렸는데 죽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로 도망한다.

-아마 성질 죽이는데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그를 40년 더 기다렸다가 그가 충분히 온유한 자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를 다시 불러내셨다.

-80세라면 이제 세상에서는 할 일이 없고, 소일거리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불러 큰일을 시키셨다.

-모세는 나이도 있거니와, 이미 의욕이라고는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여겼다.

-또 모세는 말이 어눌하고 언변이 없어 나서기를 주저하였다.

-또 자신에게는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과거 실패했던 현장에 가는 것을 꺼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불러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까지 준비하는 생활을 하자.

-당시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민족의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시리라 소망하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와 예언을 아는 자들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

-담대하게 전쟁하는 모세.

-그는 전쟁 영웅 여호수아를 길러낸다.

-그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다.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다.

-평화는 전쟁의 반대말이 아니라, 전쟁의 결말이다.

-전쟁의 반대말은 저항하지 아니함, 무력함, 스스로 패배함이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여 대항하였다.

-오늘날 전쟁은 거짓과 진리의 전쟁이다. 오늘날 거짓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 거짓이 잠깐 자기를 속여 진리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덤석 믿고 따른다. 당신은 어느 편인가?

-모세의 남겨진 40년은 세속에 빠져있는 자들과의 전쟁이었다.

-원망하는 자, 세속을 떠나지 않고 방탕하는 자, 비방하는 자, 간음하는 자, 계명을 어기는 자, 불평하는 자, 반역하는 자, 의심하는 자, 거역하는 자, 주도권 다툼을 하는 자, 거룩한 성직에 도전하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계속하면서 40년을 보냈다.

-하나님께 향한 충성심과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결론;

-오늘날의 노인들도 모세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자.

-모세처럼 정의롭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삶의 방식 앞에 불굴의 의지를 가지자. (우리나라 어버이연합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

-나이가 들었으니, 온유한 자가 되자. 고집스런 노인은 벗어버리고 온유한 노인이 되자.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이 되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사람이 되자.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는 노인이 되자.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승만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 달라고 기도하자.

-역사 의식이 없는 젊은이들이 좌파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망치려 하고, 고집스러운 우파의식을 지닌 자들과 특권의식을 지닌 자들이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서 나라를 망치려고 한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노인으로, 이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건강한 태도 성경: 마가복음 13장
1-2절

Tag: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
나이까

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
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막
13:1-2)

조지 오웰이 쓴 디스토피아 소설,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
가 ‘1984’ 와 비교될 만한 소설. 프랑스의 미셸 우엘벡 저 ‘복종’
2015.1.7.(한국 7.17) 출간(공교롭게도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이
일어난 날 출간, 이슬람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게 됨. -이미 미셸 우엘벡은 반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프랑스
유명작가임.)

교묘하게도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현존하는 사람들이라는 점과 소
설의 전개 과정이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들의 재구성이라는 점
이다.

2022년 프랑스는 2차 투표에 의해서 ‘이슬람 박애당’ 이 정권을 잡
게 되면서 유럽이 점차적으로 이슬람국가들로 변모해 가게 된다는
것을 극화함.

이슬람 대학이 된 프랑스 소르본 대학 문학 교수 프랑수아가 주인
공.

주인공 프랑수아는 타락한 교수생활을 하는 독신주의자로서 이미 영
성이 질식당한 유럽의 기독교문명이 어떻게 이슬람문명으로 교체되

어 가는지를 암담하게 서술한다.

자신도 무너만 카톨릭 신자이지만 대학이 이슬람 대학화 되면서 명퇴를 감행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 후 이슬람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온 러브콜에 응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된다. 책의 제목 ‘복종’은 이런 의미에서의 명명되었다.

이 책이 말하는 이슬람 문명운동의 핵심.

가부장 권위 회복, 남성중심의 사회, 여성들의 전통적 위치로의 회귀, 무신론에 대한 그리스도 없는 유일신론을 강조함으로서의 영성회복, 빈곤하지 않는 대다수의 보편적 가난과 소수 엘리트의 부귀(물론 이 소수 엘리트들은 정교가 분리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일부다처제 문화와 할랄 식품 문화라는 달콤한 문명이 스스로 자살한 기독교 문명을 잠식해 들어오게 된다. 이슬람문명은 힘과 무력으로 기독교 문명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적은 테러리즘이 아니라는 것)

이 책은 어떻게 감히 이슬람문명이 기독교문명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1. 역사는 그동안 수많은 문명이 교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 토인비는 ‘문명은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3. 유럽의 기독교문명은 그동안 신교와 구교의 싸움,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 공산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싸움(우파와 좌파의 싸움), 인권(여성인권, 동성애 인권)과 교리의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싸움의 결과는 영성의 고갈, 만연한 문란함, 고독하고 암울한 개인주의, 실업의 증가, 텅빈 교회당이 되었다. 어느 누구의 승리라고 할 수 없고, 결과는 기독교문명의 자살이었다.
4. 영성의 고갈상태에 처한 유럽에 이슬람은 자연스럽게 무혈입성한 셈이다.

이미 성경에는 두차례의 히브리문명의 멸망을 이야기 해 주고 있다. 솔로몬 성전의 파괴와, 헤롯 성전의 파괴가 그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히브리문명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토록 찬란했던 유럽의 기독교문명은 오늘날 지는해가 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교회는 아직은 지는해는 아닐지라도 현재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가 힘을 잃은 근본적인 원인은(원인의 종류가 많지만) 성령운동의 반대개념으로서의 율법주의화(종교화)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한국교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이제 곧 날개를 펴서 비상할 것이다.